

# 과거의 시공간에서 만나는 대중의 한문학

《조선 위항문학사》 펴낸 허경진 교수

‘위항(委巷)’은 ‘여항(閭巷)’이라고도 하는데, 서울의 뒷골목을 뜻하는 말이다. 조선 시대 서울 양반들이 주로 북촌이나 남촌에 살았고 중인들은 그 가운데 동네인 청계천 주변과 인왕산 일대에 살았는데, 위항은 이곳을 일컫는다. 정사를 큰 길에 야사를 셋길에 비유하듯, 사대부의 한문학과는 성격이 다른 중인들의 문학은 ‘뒷골목 문학’, 위항문학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조선 위항문학사》(태학사)는 임진왜란을 전후한 시기부터 구한말까지 이어진 위항문학의 성과를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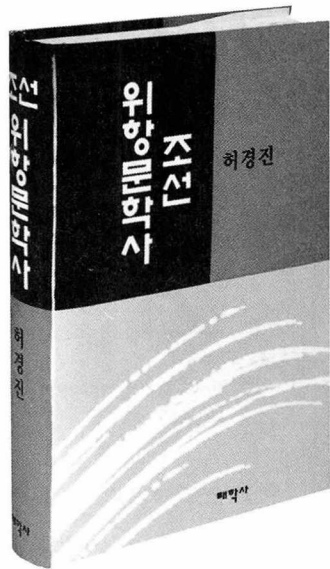
고전문학 번역에 힘을 쏟아온 허경진 교수(46, 목원대 국어교육과)가 위항문학에 관심을 가진 것은 십여년 전. 양반이 아닌 평민이 한시를 쓰고 동호회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고, 이들의 문학운동이 서양의 시민운동과 성격이 같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허교수는 1986년 《세계의 문학》 여름호(40호)에 ‘풍월향도(風月香徒)’ 연구를 발표하면서 위항문학 연구를 본격화했다.

## 문학운동이 지닌 ‘근대성’에 기대

“이제까지 한문학은 사대부 양반만 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청에서 실무를 맡은 중인들은 한문을 익혀야 했습니다.”

이렇게 배운 한문으로 시를 읊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었다. 이들은 사대부가 무릉도원의 이상향을 노래하거나 시골별장의 전원을 노래하는 동안 자신들이 밭 딛고 선 당대 서울의 자연, 즉 인왕산이나 삼청동, 활기찬 서울 서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노래하는가 하면 삼정의 문란이 심할 때는 민중의 고통을 읊었다. 더 나아가 신분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세 세생생(世世生)에 이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옥계사(玉溪社)’의 좌차일)”고 울부짖었다.

처음 연구를 시작할 때는 위항인이라는 말 대신 양반과 대립적인 의미를 띠는 ‘평민’이라는 말을 썼다. 거기에는 이들의 문학운동이 가지는 ‘근대성’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다. 연구를 진척해 가는 동안 역관이나 의원같은 기술직 중인들과 서리·아전, 또는 화공이나 악공을 비롯하여 서당훈장에서 술집 머슴이나 노예 등으로 작가층이 점



차 넓어져 기대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

“하지만 책으로 묶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하면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지배층은 아니었지만 기술직이나마 벼슬을 하고 있었고, 더러는 정3품에까지 오른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식이 있어서도 사대부가 되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정도였다. 이들을 일컬을 말이 마땅치 않아서 마무리 작업이 2년이나 걸렸다. 결국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지만 중인·서얼부터 노예까지 다양한 신분을 아우를 수 있는 ‘위항인’이라는 용어를 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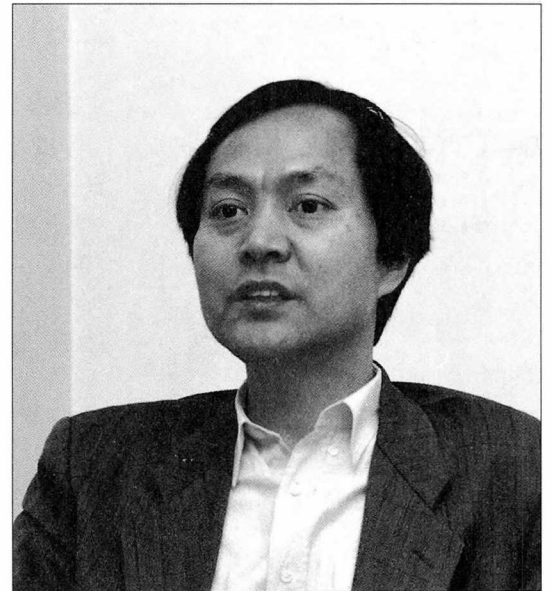
위항문학의 출발은 노예시인 유희경·백대봉이 활약한 선조대의 <풍월향도(風月香徒)>로 볼 수 있는데, ‘향도’는 오늘날 상두꾼이라는 말에 자취가 남아 있듯이 천한 일을 하는 무리를 의미했다. 평생 노역에 시달리며 꾸념이나 할 수 있을 뿐이었던 이들이 ‘풍월’을 읊기 위해 모인 것이다.

초기 위항시인들은 부당한 사회제도에 대한 비판보다 시인이라는 사실에 자족했다. 유희경은 상복을 지어달라는 부름이 없으면 집안에 틀어박혀 하루종일 시를 읊었다. ‘삼청시사(三清詩社)’의 시인들도 현실세계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보다 소극적인 ‘선계지향(仙界指向)’을 택했다.

“위항인들은 사대부들과의 관계에서 당연히 스스로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정조임금도 그들을 광대수준으로 이해했고, 직업이나 벼슬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문학은 이들에게 하나의 세력을 이루는 계기가 되어준 셈이다. 《소대풍요(昭代風

“적어도 고등학교 때 한번쯤 들어본 고전을 한글로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문학 연구층이 두터워지고 그 깊이가 더해지는 대신 대중들과는 더욱 멀어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허경진 교수.

謠》서문에서 내세운 ‘천기론(天機論)’도 결국은 신분제한을 뛰어넘기 위한 그들만의 방편이었다. 과거시험공부에 얽매인 사대부들은 천기(天機)를 온전히 할 수 없었지만, 자신들은 마음이 얽매이는 바가 없어 시의 격조가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항과 함께 역관들의 활약이 두드러지자 이들은 비로소 시대의 한 주역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집단이 되었다.

## ‘누정문학’ 연구도 본격화할 터

대원군 시기의 ‘육교시사(六橋詩社)’ 동인들은 새로운 시대의식을 담은 시를 선보였다. 이들은 개화파와 어울리며 당대의 양반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시대를 이끌어 나가려 했고 그 의지와 모습을 한문학에 수용했다. 김득련의 《환구음초》 같은 기행시집은 서양문물을 처음 구경하고 받았던 충격을 표현했다.

“하지만 고종 이후에는 별다른 시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갑오경장 이후 양반과 평민을 나눌 필요가 없어졌고, 평민들이 지은 한문학이 더이상 위항문학으로 분류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경진 교수에게 이번 작업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위항문학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이어지는 18·19세기의 연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새로 시작한 ‘누정문학(樓亭文學)’과 함께 위항문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옛날의 한문학과 연결시키는 작업이다. 대중과 만나는 한문학’을 학문의 한 화두로 삼아 온 그는 《조선

위항문학사》를 통해 한문학이 죽어없어진 문학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문학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

“작년에 《난중일기》를 번역했는데, 도움이 될 만한 논문을 한 편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때 한번쯤 들어본 고전은 한글로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문학 연구층이 두터워지고 그 깊이가 더해지는 대신 대중들과는 더욱 멀어지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그는 위항문학을 쉽게 알리기 위해 KBS에서 지난 31일 방영한 <조선왕조실록> ‘평민문화의 메카 인왕산’의 자문을 기꺼이 맡았다. 한문학 연구자들이 노력은 하지 않고 사람들이 책을 읽지 않는다고 타박할 수 없는 노릇이라는 오랜 생각에 따른 것이다.

올해는 허경진 교수에게 부산한 한 해가 될 듯 싶다. 지난 20년 동안 매달려온 평민사의 <한국의 한시>를 40권으로 완간하고, ‘누정문학’ 연구를 본격화한다. 위항시인들의 시집도 번역하고, 위항문화의 전파자로 첫손에 꼽을 만한 장혼(張混, 1759~1828)의 평전도 쓰고 싶다. 평민서당을 열고 위항시인들의 시집을 펴내기 위해 직접 목활자를 만들기도 한 장혼은 하버드 대학의 엔칭 도서관에서 직접 ‘구경’한 목활자본 때문에 더 각별한 느낌이다. 삼국시대부터 한문학사를 흐름을 살피는 <한국의 한시>는 형식상 완간이 되지만 아직도 소개하고 싶은 시인이 많아 10권 정도를 더 구상하고 있다.

— 이현주 기자